

## 자영업자 벼랑끝에 서다

불황 한파에 자고나면 휴·폐업...광주 음식점 을 3,572곳 문닫아

소상공인들도 정부 지원금·융자로 근근이 명맥

"5년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요즘 같이 힘든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광주시 동구 서석동 대학가의 한 음식점 업주 김모(여·57)씨는 "원자재 가격 폭등과 영업 부진을 감당하지 못해 자신의 가게를 포함해 주변 업소 3~4곳이 폐업을 앞두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게 이 일대 음식점 업주들의 하소연이다.  
올 초 한 판에 3천원이던 계란 값은 현재 4천500원, 1만8천원짜리 LPG 1통 값이 2배 가까운 3만4천원으로 경총 뛰었다. 3천원이던 밀가루(3kg)는

4천원으로 올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역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일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지회에 따르면 전체 1만3천508개 회원업소 가운데 올 1월~10월까지 휴·폐업한 곳이 무려 3천572곳에 달한다. 신규 개업한 업소는 1천43곳으로, 한 곳이 개업할 때 3곳 이상이 문을 닫는 셈이다.  
광주 서구에서 식당을 하고 있는 김모(56)씨는 "손님이 3분의 1가량 줄어 그나마 1명 뿐이던 종업원을 내보내고 혼자 식당을 꾸리고 있다"며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울상을 지었다.  
수퍼마켓도 대형 할인점의 물량 공세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고사 직전이다. 광주 수퍼마켓 협동조합은 회원업소가 750곳에 달하지만 영업 부진으로 월회비 5만원을 납부하는 곳은 전체의 6.6%인 50개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조합측은 회비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합양관점을 운영하고 있는 양모(60·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플라스틱 양동이 가격이 지난해 7천원에서 1만4천원으로 뛰었는데 누가 물건을 사겠느냐"며 "최근에는 마수걸이를 못하는 날도 있을 정도다"고 하소연했다.

소상공인들은 정부지원금과 융자로 근근이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현재 광주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천만원 소액대출을 받은 업소는 3천500곳, 액수는 350억원에 달한다.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점포·영업확장용 자금으로 1천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으나 이 용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영업 부진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료 등을 납부하는 데 융자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지원자금도 2007년 한해 동안 보증금액이 431억6천300만원이었으나, 올 9월말 현재 717억5천만원에 달하는 등 급증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1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1차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이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의 분노, 서울서 폭발

"수도권 규제 완화 철회하라" 여의도서 대규모 집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분노하는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함성이 서울 여의도를 흔들었다.  
<관련기사 3면>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국회의원 비상모임'과 28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비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초자치단체장,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집회에서 '비상모임' 공동대표인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수도권 규제 철폐로 기업들은 수도권에 더 몰리고, 지방에는 오히려 기업들도 되돌아갈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는 지방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지방을 잘치러 우뚝하고 지방을 완전히 차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심대평 선진당 대표 역시 "지방

이 자율과 창의로 스스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서 비상모임은 한나라당 지도부가 수도권 규제 철폐 반대 투쟁을 지지하고 나선 것을 비난하는 한편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보다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비상모임은 다음주 중에 실무회의를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지지 대책과 장외 집회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도급순위 41위 신성건설 기업회생 신청

## 건설업계 부도 도미노 오나

국내 도급 순위 41위 업체인 신성건설이 결국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부도 도미노'가 시작된 게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재산보전처분 신청 등을 했다고 밝혔다.  
신성건설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41위의 중견건설사로, 국내 2조원(59건), 해외 5억2천만달러(11건) 규모의 공사를 진행중이다. 국내에선 '미소지움'이란 아파트 브랜드로 널리 알려져 있다.  
신성건설은 건설경기 침체로 올 들어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려왔으며 지

난달 31일에는 1차 부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기도 했다. 현재 신성건설의 금융권 채무는 은행 4곳(1천205억원), 제2금융권(302억원) 등 총 2천456억원으로 파악됐다.  
신성건설은 향후 법원이 자사의 채권자 중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구해 기업회생계획을 인가하면 본격적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 최대 6개월 가량은 민간공사는 물론 아파트 분양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이번 신성건설 사례는 건설사 줄도산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부도 공포도 커지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무등중 1회 홈커밍데이**  
• 일시 : 2008.11.15(토) 오후 3시  
• 장소 : 모교교정  
• 행사  
- 1부 : 교정에서 친구들과 손잡기 외  
- 2부 : 스승님들과 만남(오후 6시 백운동 프라도호텔)  
이러 동창 벗들을 함께 합니다.  
무등중 1회 동창회 cafe.daum.net/mudeung1  
(연락처: 임성태 016-731-0061)

**중고생 겨울방학 학습특강!!!**  
개강 : 2008년 12월 30일(화)  
2인 1실 기숙사, Power 김사진  
**호남한샘학원**  
교목전화 : (061) 332-1111  
홈페이지 : http://www.hosam.ac.kr

## 오늘 수능 준비를 잘 챙기세요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78개 시험지구, 996개 시험장(중·고교)에서 58만8천282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가운데 실시된다. 광주·전남은 71개 시험장에서 3만4천278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치른다. <관련기사 8면>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마쳐야 하며, 시험은 8시40분부터 언어-수리-외국어-탐구-제2외국어-한문 영역 순으로 5교시에 걸쳐 오후 6시5분까지 실시된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 광공 및 기업체의 출근시각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듣기 시험이 진행되는 ▲오전 8시35분~8시58분(23분간) ▲오후 1시55분~오후 1시35분(30분간) 두 차례 시험장 주변 상공의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최재호·정성필 기자 lion@



**노민이 웃는 세상!**

우리 모두가 웃는게 세상입니다.  
백년지약을 함께 지켜가는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노민이 웃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노민이 웃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노민이 웃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노민이 웃는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신진약품 항해시스템 프리드**  
1688-3740

**호인병원**  
1577-1319

광주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